

# 캔디맨

단편 극영화

각본/감독 안상호

H.P: 010-9396-4460

e\_mail: [an7326@hanmail.net](mailto:an7326@hanmail.net)

## 등장인물

캔디맨 (남 30대 후~40대 초)

지적 지능이 7살에 멈춰버린 장애를 가진 인물로 일반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시선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항상 사탕을 들고 웃음을 잃지 않는 순수한 얼굴을 지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

복지원담당자 (여 30대)

복지원에서 근무하며 사회 적응 훈련을 통해 캔디맨을 교육하는 선생님으로 캔디맨의 뒤를 따라다니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인물.

아이엄마 1~2 (여 30~40대)

공원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이와 캔디맨이 놀고 있는 에피소드를 겪게 되는 인물로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의 엄마.

아이 (남/여 8~10세)

유일하게 캔디맨의 사탕을 받아주며 순수한 아이.

풍선장수 (남 50대 초)

공원에서 풍선을 파는 상인.

노숙자[1, 2] (남 50대 초)

벤치에 앉아 있는 아줌마 (여 40~50세)

하모니카 시작장애인 (남 60~70대)

여학생1/2/3 (여 10대 후)

전철 개찰구에서 갑작스레 캔디맨과 마주치자, 당황하며 무시하듯 쳐다보며 돌아서는 학생들.

그 외 복지원 사람들... 10명 (단역) (남/여 30대~60대)

주제: 행복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갇혀있지 않다.

작품 의도:

세상 모든 사람의 생김새와 모든 사물의 모양은 각기 다르다. 이렇듯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살아가는 방식 또한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마치 잘못되었다고 인식한다. 다른 것과 잘못된 것은 다르다.

좀 더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진실함이 묻어 나온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의 내면세계에 관해 상상해 보고 싶었다.

시놉시스:

어느 날 맑은 날 공원에 빨간색 축구 국가대표 응원 유니폼에 재킷을 입고 반바지 차림에 입으로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쉴 새 없이 좌우로 흔드는 행색이 묘한 부조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마치 광(狂)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입에는 사탕을 물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탕을 건네지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듯 아무도 그의 사탕을 받아주는 이는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웃고 있다.

공원 산책을 나와 그가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학생, 주부, 샐러리맨, 노인 등) 분주히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처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일상의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바라보지만, 정작 그의 내면의 세계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 오늘도 그는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테크노 음악과 함께 사탕을 들고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듯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이 마치 같은 교육을 받은 듯 획일화 되어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어쩌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른다.

풍족하게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늘 걱정과 고민에 빠져있는 우리보다 사탕 하나에 행복해하는 그를 보면서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그가 사람들에게 건네는 사탕은 사탕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다. 아니 그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또다시 그를 아니 그와 비슷한 누군가를 만난다면 진정 따뜻한 미소로 그 웃음에 답하고 싶다.

아마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사탕 하나에 행복해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일지도 모른다.

## opening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의 전경을 따라 맑고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면 멀리 비추던 카메라 지상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어느 건물에 다다른다. [F.O]

S#1 타이틀 백

검은색 바탕화면에 달콤함이 느껴지는 소리(효과음)와 함께 메인타이틀 “캔디맨”이 뜬다.

## S#2 복지원 쉼터 (방)/ 오전

복지원 입구에 붙어있는 “사회적응 경험(훈련)”이라고 붙어있는 포스터를 따라 복도를 지나면 여러 명의 쉼터 사람들 비춰 지나가면 복지담당자(여)의 뒷모습을 따라 카메라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방안에서 빨간 유니폼(축구 국가대표)을 입고 자켓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외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적 장애로 지능이 8살에 멈춰버린 이 이야기의 주인공 캔디맨(남)이다.

복지담당자가 Y셔츠를 건네지만, 한사코 뿌리치는 캔디맨.

그저 재킷을 들고 옷고 있을 뿐이다.

### S#3 복지원 입구 마당/ 오전

여러 명의 복지원 사람들 일렬로 서있고 복지담당자 캔디맨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

복지사 자! 우리 사탕천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연습한  
공원에서 산책하기입니다.

연습한 대로 잘할 수 있겠죠. 사탕천사님.

대답 대신 웃으며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캔디맨.

#### S#4 센트럴파크 유람선 선착장 입구/ 오전

센트럴파크의 전경이 하늘 위에서 아래로 아름답게 보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카메라 내려오면 센트럴파크 유람선 선착장 입구에서 캔디맨과 복지사 담당선생님이 마주하고 있다.

복지사 자! 여기서부터는 연습한 대로 혼자 갈 수 있죠.

재킷 윗주머니에 만원짜리 2장과 오천원짜리 2장을 꽂아준다.

**복지사**            **이걸로 맛난 것도 사 먹고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사탕천사님~ ㅎ**

대답 대신 웃으며 마치 그의 내부에서 그만이 들을 수 있는 테크노 음악이 끊임없이 계속되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캔디맨.

흔드는 고개에 맞춰 들려오는 테크노 음악. ♪빠 봄빠봄빠~~ ♪빠 봄빠봄빠~~  
담당자 캔디맨을 뒤로하고 멀어져 간다.

### S#5 센트럴파크 입구 / 오전

센트럴파크 유람선 선착장 입구에 몇몇 사람들 보이고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캔디맨에게는 모든 이가 호기심으로 가득한 관심 대상이다.

3명의 여학생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가 한 학생의 뒤에 서서 말없이 웃고 있는 캔디맨.

뭔가 이상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는 한 학생 그의 행색에 놀라 순간 '악'하고 소리친다.

여학생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손에 들고 있는 사탕을 건넨다.

**여학생1**            **뭐야! 놀랬잖아. 재수 없어.**

**여학생2**            **야! 뭐해 프러포즈하고 있잖아. ㅋ ㅋ**

**여학생3**            **웬만하면 좀 받아줘라. ㅋ ㅋ**

기분 나쁜 듯 친구들을 쳐다보며 캔디맨을 무시하듯 '치'~하고 간다.

뒤따라가며 웃는 친구들.

웃는 학생을 바라보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같이 웃는 캔디맨.

여기서 또다시 들려오는 테크노 음악. ♪빠 봄빠봄빠~~ ♪빠 봄빠봄빠~~

어이없어 하는 여학생1. 캔디맨을 따라 하며 재밌어하는 여학생2. 3.

학생들 멀어지는 모습으로 캔디맨의 시점으로 둥근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줌마(40~50대) 옆으로 다가가 앉는다.

**슬쩍 캔디맨을 보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옆자리로 비켜 앉는 아줌마.**

옆으로 비켜 앉은 아줌마에게 웃으며 사탕을 건네는 캔디맨.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는 아줌마.**

아줌마의 뒷모습을 보며 여전히 웃고 있는 캔디맨.

먼발치에서 이를 지켜보는 복지담당자.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따가운 시선과 냉정함에도 여전히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캔디맨.

엄마1의 손을 잡고 센트럴파크 놀이터 쪽으로 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캔디맨도 따라간다.

#### S#6 센트럴파크 놀이터/ 오전

센트럴파크 왼쪽으로 유람선이 다니고 오른쪽에는 카페(음식점 및 상점)이 있으며 중앙 복도에 팽이 모습으로 만들어진 놀이터가 있다.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놀이터를 발견하고 뛰어간다.

엄마1 유진아 천천히 가! 넘어져~~

놀이터에는 언니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과 몇 명이 놀고 있다.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캔디맨 놀이터에 아이들을 발견하고 신나서 뛰어간다.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가운데 끼어들어 같이 장난을 치고 노는 캔디맨.

아이1이 놀다 넘어지자 캔디맨 일으켜 세우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울려고하는 아이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 아이 얼굴을 잡고 장난치는 캔디맨을 발견한 엄마1 달려온다.

카페에 앉아있던 엄마와 다른 아이 엄마까지 와서 캔디맨에게 아이들 괴롭히지 말라고 한다.

엄마1 (아이 팔을 잡고 캔디맨을 노려보며 화난 말투) 뭐 하는 거예요?

엄마2 저기요~ 여기 아이들이 노는 곳이에요.

자세히 행색을 보니 정상이 아님을 알아차린 엄마?

엄마1, 2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는 캐디맨.

엄마2 저기~ 이것 봐요~ (반말) 여기 좀 보라고...

사탕을 받아 든 아이의 손을 치자 바닥에 사탕이 떨어진다

엄마? 아이 더럽게~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받지 말라고 했지!!

엄마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이 표정

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주워 눈으로 아이에게 장난을 치는 캐디맨.

순수하게 웃는 아이의 맑은 표정.

**엄마2**            (아이의 손을 끌며) 이리 와~

아이를 카페로 데려가는 엄마1.

다른 아이에게 다시 다가가자 다른 엄마도 아이를 데리고 간다.

또다시 혼자가 된 캔디맨 놀이터 팽이를 타고 웃고 있다.

**엄마2**            아니 제정신이 아니면 보호자가 데리고 있어야지~ 참~나!

**엄마1**            그냥 내버려둬요~ 불쌍하잖아요.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툭툭거리는 엄마1.

먼발치에서 엄마들과 캔디맨을 지켜 보고 있는 복지사.

팽이를 타고 돌면서 캔디맨의 눈으로 들어 온 풍선을 팔고 있는 아저씨를 보고 그 쪽으로 달려간다.

### S#7 센트럴파크 / 오전

아이들 있는 쪽으로 풍선을 팔려고 다가서자 엄마들 관심 없는 듯 손을 흔들면 필요 없다고 하자 돌아서면서 캔디맨과 마주친다.

풍선을 허리에 매달고 손에 들고 있는 풍선 장수의 가슴에 풍선 1개 3천원이란 문구가 보인다.

풍선을 보고 손을 내미는 캔디맨.

풍선을 주지 않자, 사탕을 내미는 캔디맨.

**풍선장수**        (퉁명스럽게) 이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는 길을 막는 캔디맨을 밀치고 가려다 재킷에 돈을 발견한 풍선장수.

**풍선장수**        (부드러운 말투) 풍선이 갖고 싶구나~ ㅎ [or 풍선 사려구~]

풍선을 건네고 재킷에 있는 5천원짜리 지폐를 꺼내어 가지고 간다.

캔디맨이 따라가서 어깨를 툭 치자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잔돈을 내주려다가 사탕을 내매는 캔디맨을 보고 그냥 쑥 웃으면 받지 않고 그냥 간다.

## S#8 공원 안 거리 / 오전

여느 공원과 다름없는 여러 사람의 모습. [단역 필요 / 스텝 및 지인 전체] 조깅하는 사람.

유람선은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 폰으로 T.V시청하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 등등...

캔디맨의 시선으로 각각의 사람들 지나치고, 멀리 보이는 어느 가게(노상)에서 옥수수를 들고 나온다.

옥수수를 먹으며 자신의 내면에만 들리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걸어간다.

(시간경과) 같은 장소

시각 장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벤치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고 있다.

바구니에 동전 넣어 주는 사람들을 보면 호기심이 발동한 캔디맨.

한 손에는 다먹은 옥수수를 들고 있고 다른 손으로 사탕을 넣어 주려고 하모니카 맘을 향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다가가는 캐디맨.

다가오는 캔디맨의 행색을 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선글라스 위로 캔디맨을 쳐다보면서 비키라고 순진하지만, 계속 하모니카맨에게 다가간다.

하모니카맨 옆에 앉아 다 먹은 옥수수로 하모니카를 따라 하는 캐디맨.

캐디맨에게만 들리는 테크노 음악 소리 교차해서 들리며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광경을 보는 남녀 커플 웃으면 지나간다. [지인 초대]

잠깐의 댄스파티를 즐기고 있는 캔디맨의 허리에 매어 놓았던 풍선이 날아가고 풍선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캔디맨.

### S#9 공원 안 평상 / 오전

풍선을 쫓아가다가 숨이 차서 헐떡이다가 평상에 눕는다.

숨소리 줄어들면서 깜빡 잠이든 캔디맨.

잠시 후 누구가 캐디맨을 발로 툭 찬다.

행색을 보니 노숙자다. 시커먼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에 지저분한 옷차림에 배낭을 메고 있다

발로 툭툭 한 번 더 차도 캔디맨에 일어나질 않자, 배낭을 평상에 꽂 내려놓는 소리에 캔디맨 잠에서 깨다

어리둥절한 캐디맨에서 시비를 거는 노술자

노술자1

야~ 인마! 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남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야?

화난 노숙자를 보고 씩 웃는 캔디맨.

노숙자1      야~ 내 말이 말같이 않나?  
                여긴 내 나와바리라고~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재킷에 돈을 발견한 노숙자.

노숙자1      야! 남의 집에서 신세를 졌으면 돈을 내야 할 거 아냐!

미소를 지으면 사탕을 내민다.

노숙자1      이런 거 말고 돈! 너 돈이 뭔지 알지~

캔디맨에게 어깨동무하면서 재킷위에 돈을 썩 뺀다.  
이때 평상 뒤에서 나타난 길거리 개똥 철학자.(이하 노숙자2)  
노숙자2의 눈치를 보더니 만원짜리 1장을 갖고 5천원에 재킷에 다시 꽂아 준다.

노숙자1      얀 마! 원래 인생은 말야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도우며 정의롭게 사는 거야~ 안 그래?

노숙자를 바라보다 웃으며 사탕을 내미는 캔디맨.  
캔디맨을 보지도 않은 채 평상에 눕는다.

노숙자2      정의라... 정의란 무엇인가? 존 롤스 정의의 법칙에 따르면...  
                세상을 바꾼 위인이거나 또는 훌륭한 대통령이든지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을 딴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해도 말이야

노숙자1      왜 또 남의 집 앞에서 개똥 철학이야! 재수 없게...

노숙자2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내가 설령 위대하거나 훌륭하다고 해도 태초에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위해서 나눌 때 비로소 정의라고  
                할 수 있지~ 음~

캔디맨이 다시 사탕을 건네자 사탕을 받아 배낭 옆 주머니(비상식량)라고 쓰여 있는 곳에 넣는다.

사탕을 받아주자, 기분이 좋아진 캔디맨 연신 고개를 저으면 웃으면 춤을 춘다.

지나가는 유람선을 보는 캔디맨. 유람선을 향해 손을 흔들자, 손을 흔들어 주는 손님. 유람선을 향해 쫓아간다.

### (시간 경과)

유람선을 쫓아가는 중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캔디맨의 시점으로 한 사람씩 관찰하기 시작하다

뭔가 고민과 걱정에 빠진 사람들. [처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

### (목타주)

- 1 아줌마 - 아이들 교육 문제 / 항상 빽빽한 가계부.
  - 2 노인 - 하는 일 없이 배회(공원/ 약수터) / 파지 줍는 모습.
  - 3 학생들 - 성적표. 주입식 교육(학교/부모/학원)\_처음에 등장한 여학생 중 1~2명
  - 4 비즈니스맨 - 전화기를 들고 거래처와 통화하는 모습.

공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 1/ 2/ 3 / 4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면 지하도 및 그늘로 들어가서 나오면 햇살이 구름을 벗어나 환하게 웃고 있는 캔디맨의 얼굴에 비치면 고민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과 상반되게 엉갈린다.

insert)

다양한 얼굴을 한 조각상.

다양한 얼굴 조각상에서 캔디맨의 얼굴을 빼꼼이 내밀면 조각상과 같이 보이는 장면.

## S#10 피아노 모형 / 오전

얼굴 조각상에서 뛰어가는 뒷모습으로 피아노 모형을 발견한 캔디맨 연주를 하기 시작한다.

그랜드 피아노 모형 앞에 앉아 자신의 내면에 세계에 들리는 밝고 경쾌한 연주를 시작하는 캔디맨.

피아노를 따라 카메라 한 바퀴 돌면 멋있게 정장 차림으로 연주를 하는 캔디맨의 모습을 교차하여 보여준다. [판타지 / 몽환적인 느낌] 초저녁 노을과 함께 촬영.

S#11 버스정류장 / 오전 [송도 버스정류장]

공원에서 나와 복지원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캔디맨.  
근처에서 캔디맨을 지켜보는 복지사.

### S#12 복지원 입구/ 정오

복지원 입구에 들어서자, 담당 복지사가 캔디맨을 기다리며 사탕(츄파춥스) 한 통이 놓여 있다.

사탕 한 통을 받아 들고 춤을 추는 캔디맨. 「퍼포먼스 또는 댄스 고민??」

### S#13 복지원 쉼터(방안/휴게실/로비)/ 같은 시각

사탕 한 통을 들고 복지원으로 들어가는 캔디맨.  
입구에 쉼터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며 들어서는 캔디맨

안으로 들어서며 만나는 쉼터 사람마다 사탕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복지원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리에 앉아있는 몇 사람 서로 자리를 비워 자기 옆으로 앉으라면 웃으며 반긴다.

방문을 열고 캔 통에 들어 있는 사탕을 꺼내다 바닥으로 쏟아지자, 사탕을 서로 주우려는 쉼터 사람들.

다른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캔디맨.

휠체어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쉼터 친구(노인) 숟가락을 빼서 들고 장난친다.

숟가락을 들고 방안 한 바퀴를 도는 캔디맨.

복지담당자 장난을 말리며 숟가락을 받아 든다.

캐디맨과 쉼터 친구는 서로 좋아서 함박웃음이다.

쉼터 모든 사람 사탕을 받아 들고 1층 로비 같은 넓은 곳에 모여 있고 캔디맨 친구의 휠체어 밀고 나오면 천국의 세레나데 테크노 음악의 전율과 함께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 사탕을 들고(입에 물고) 춤을 추며 카메라 서서히 슬로우로 비추면서...  
[F.O / 화이트 아웃]

\* 아마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그리 멀지도 낯설지도 않을 것이다.

-끝-